

■ 호주 형태별 음반 판매량 추이(2006~2010)

(단위: 백만 장)

구분		2006	2007	2008	2009	2010	연평균성장률
오프라인 음반	CD	38.1	33.8	30.2	29.4	24.5	-10.5%
	뮤직 비디오	4.1	4.5	3.9	4	2.6	-10.8%
	기타	4.6	2.6	1.5	0.6	0.1	-61.6%
디지털 음반	싱글 트랙	10.3	16.3	22	34.3	48.9	47.6%
	디지털 앨범	0.5	0.9	3.2	2.5	3.7	64.95

*뮤직비디오에는 DVD와 VHS가 포함됨. 기타는 싱글, 레코드판, 카세트와 같은 매체가 해당되며 싱글 트랙은 온라인 트랙 판매만 해당됨.

※출처: IFPI (2011) 재구성

- 형태별 음반시장을 구분해보면, 오프라인 음반으로서 CD(Compact Disc), 뮤직비디오(DVD, VHS포함), 기타(싱글, LP, 카세트테이프 등)가 있으며 디지털 음반에는 싱글트랙(온라인 트랙)과 디지털 앨범이 있음
- 2010년 호주의 오프라인 음반은 총 2,720만 장이 판매되었는데 이 가운데 CD가 2,450만 장(90.1%), 뮤직비디오 260만 장(9.6%), 기타 10만 장(0.3%)이 판매되었음. 또한, 디지털 음반으로는 싱글트랙이 4,890만 트랙이 판매되었고 디지털 앨범은 370만 장이 판매되었음
- 한편, 대표적인 음반 매체인 CD는 2006년에 비해 2010년이 대폭 감소한 수준(CAGR: -10.5%)이지만 싱글트랙(CAGR: 47.6%)과 디지털 앨범(CAGR: 65.0%)은 판매량이 급증하였음